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행 동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서울교회설립28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며 살리라

원로목사 이종윤

온실 속의 작물처럼 외부로부터 자극이나 시련없이 평온 무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받은 특혜인가? 오히려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고통의 와중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 아닐까?

오늘의 서울교회가 탄생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진통을 너무도 혹심하게 겪어야 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크신 섭리 가운데서 서울교회가 필요하시어 그토록 많은 이들의 가슴에 명이 들도록 기막힌 사고를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서울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신령한 감격도 수 없이 체험하였다. 혈혈단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 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빈 손 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흩어져, 고아처럼 성도들은 차가운 마루바닥에 엎드려 얼마나 통곡했던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몰려드는 성도들은 마치 무슨 성전(聖戰)을 위해 전쟁터에라도 나가는 용사들처럼 의기에 찬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였다. 집에 있는 방석, 피아노, 소파 등 재산목록에 있는 제일 좋은 것을 우선순위로 교회로 들고 왔다.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비전만 쳐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다 보니 교회는 천국 그대로였다. 50일간의 출애굽 대행진의 기도회를 마치고 마침내 우리는 흥해를 건넌 용사처럼 그 해 11월 24일 교회 간판을 걸고 서울교회를 설립하였다. 선교와 구제와 교육의 세 기둥을 세우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흑자는 하나님을 알되 경외하지 않고 어떤 이는 경외는 하되 사랑하지 않는 이가 있으나 서울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과 그 은총을 체험한 터라 환경이야 어떻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어찌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겠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어둡고 찌르는 가시 때문에 방황하면서 괴로워하던 때가 어찌 한 두 번 이리요. 누구를 위해 이같은 고통을 맛보아야 했는지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지!

그러나 지금은 베일에 감춰진 신비처럼 그 원인을 희미하게는 알 수 있으나 아직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밤도 낮도 없이 때로는 시궁창에 버려진 찌꺼기처럼 원인도 모르는 공격도 비난과 천대를 받으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그 뜻을 좇아 전진하는 일 뿐이다. 우리같은 것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성숙을 더욱 다져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더하자. 좋았던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무엇이든 감사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축복사건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날이 찬송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선 곳이 천국이 될 터이니 전천후 감사 속에 사는 우리 서울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교회설립28주년 감사주일·추수감사절

I·II·III 예배 시 성찬식 거행 찬양예배 - 가브리엘 찬양대 감사찬양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며 교회설립28주년 감사주일이다. 주일 I·II·III 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또한 추수감사헌금을 봉헌한다.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의 추수감사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추수감사절 절기찬양 "말씀대로 거두리라(김한나 작곡)"를 백경화 권사의 지휘로 찬양하고 오르가니스트

이수정 선생, 피아니스트 박승기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하며 곡중 솔로는 박민정, 김도은, 김동렬, 오광근 대원이 맡는다. 대금은 오병욱 선생이 연주한다

그리고 추수의 감사와 기쁨에 대해 6막의 연극을 찬양대원들이 직접 연기하여, 찬양곡 사이에 영상으로 함께 보여준다. 주연은 이종욱 집사, 송성대 집사 등이 맡았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감우균·김연화1 안미경 문승순 장창수·박혜정 김현수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11월·12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1월 24일: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 12월 1일: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 12월 8일: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12월 15일: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
 - 12월 22일: 김봉배(통증), 김관섭(영상의학)
 - 12월 29일: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상담 시간: 오전 10시-11시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 2019 사명자대회 -

특별새벽기도회 은혜중에 마무리하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달려온 사명자대회가 지난 주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림으로 은혜롭게 마무리하였다.

매일 낮 12시부터 1시 사이 교회회복을 위한 은혜미야의 기도 시간, 전교인의 24시간 기도 등 말씀과 기도 운동인 사명자대회가 50일 동안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사명자대회가 4년여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혜롭게 진행 중인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기도제목

과 교회 회복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22일(금) 현재 주간자율기도는 총 4883시간이며 매 주 약 685시간이며 매일 약 115시간이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도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도려 기도해야 한다.

2019 사명자대회 결과 보고가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지니신 권위로 그분의 교회에게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분의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영향을 주는 삶을 살도록 사명을 받았습시다.

▶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의 권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수시아'로 '~로 부터'라는 의미의 '엑크'와 "본질"이라는 '우시아'가 결합한 단어로, '본질로부터 나오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본질'이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교부와 신학자들은 삼위 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체'라는 단어에 헬라어 '우시아'를 사용하였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의 근원을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도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권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마 6:13)로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가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대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여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과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힘입어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성경통독: (통독 본문 기록)

▶ 주어진 "사명자대회 기도문"을 읽고 기도드립니다.



2019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

성령의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

강사 박순오 목사

11월 18일(월) 사울 왕국에서 다윗 왕국으로 (삼상 15:22-23, 26-30)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에 확신이 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서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 곧 성령이 오시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연인 스스로는 불가능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에게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는 첨병으로 세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발견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 왕국의 예표는 다윗 왕국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는 거리가 먼 왕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조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택한 자였습니다. 사울도 처음엔 겸손한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교만 섞인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울 성향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상 일어났던 수많은 위대한 운동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사울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엘리트 의식이 생기고, 배타주의가 생기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바리새적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사에서의 거의 모든 운동들이 불꽃이 사라지고 나면 사울의 집이 되고 맙니다. 사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 사울의 집을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종교의 영들이 움직여 강력한 운동력으로 위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면에서 내면의 주된 관심면에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될 때까지만 원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온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사울은 두루 다니며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일에 유용한 존재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다윗은 진정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능력과 은사와 사역을 개발해 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울의 경향을 버리고 다윗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이고, 다윗은 순종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그 분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성향은 다 털어내고 다윗의 성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19일(화) 마태의 소명 (마 9:9-10)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래 전에 온 세상이 가인의 길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노아를 불러내셨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 부르심의 상황-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섭리 하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2. 부르심의 은혜-예수 당시 세리는 육된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던 사람들로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태를 부르신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저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3. 부르신 분-마태의 소명은 마태를 완전히 알고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지혜로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나가십니다.

4. 부르신 내용-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는 매우 심플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개별적 명령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주님을 삶의 경배자와 인도자로 확실하게 영접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것이고, 주님과 공동운명체가 되어 영광과 고난까지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5. 부르심의 효력-예수님의 부르심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마태의 삶에 놀라운 효력을 발휘하여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6. 부르심의 열매-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로 인해 많은 죄인들이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문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즉시 일어나 따르십시오. 한국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였다면 오늘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 지금과 같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로 인해 한국교회로 인해 이 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월 20일(수)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 (행 1:3-8, 엠 3:16-19)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칫 이 약속의 엄청난 경이로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환상적인 기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짐은 우리들의 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손에 잡히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음 속의 뿌리까지 완전히 바꿔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었지만, 교회는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확대해 왔고, 무관심하거나 배척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세례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세례 사역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난 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마리아와 에베소에 역사하시며, 곳곳마다 기독교의 역사에 엄청난게 많은 성령의 부르심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 성령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주시는 필수적인 선물이다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주님의 승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모여 열흘 동안이나 기도해 오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행 : 1-4). 그들은 예수님께서 뽑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동취 운영부 집사
정리: 허 속 권사

권능을 힘입은 그들은 예루살렘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2. 성령의 부으심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시켜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에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초대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고 계십니다.

3.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를 위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충만(플레로마)에 이르도록 간구했습니다(엡 3:16). 사도 바울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께 내재해 있는 충만'이라는 목표지점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엡 3:16-19). 교회는 본래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의 모든 충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 하면 주님의 강력한 간섭이 나타납니다. 서울교회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 사랑으로 충만하여 저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21일(목)

최대 계명과 지상 명령 (마 22:37-40, 28:19-20)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시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최대 계명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1.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예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원어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보다는 사랑하라는 음성이 먼저 들려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방법론이 나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묘사하는 단어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한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신명기 6:5의 인용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전 인격을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2.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복사, 봉사, 구제)

"둘째도 그와 같으니"(마 22:39)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성질이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압축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묘사

하는 단어는 '봉사(사역, ministry)'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의 봉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3.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할 일은 주님과 주님의 구원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도 명령은 너무 중요하여,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다섯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전도와 관련된 일 외에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수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전파 뿐입니다.

4. 세례를 베풀라 (교제)

세례는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다는 '담그다'와 '씻다'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담그다'는 의미로 볼 때 세례 의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씻다'는 '죄씻음' 또는 '죄사함'이란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과 죄씻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또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증표일 뿐 아니라 교제의 상징입니다.

5.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명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는 제자도, 또는 양육입니다. 양육이란 신자가 그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에 있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성도는 거듭난 이후 남은 생애동안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쳤고, 함께 교제했으며, 예배했고, 봉사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삶의 모범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서울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22일(금)

이사야의 삼중 이상 (사 6:1-8)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는 이상(vision)과 이상을 이끌어가는 열정(passion)입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비전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본 비전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스랍 천사가 솟으로 자기의 입술을 지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귀

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1. 위로 향한 비전(Upward vision)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의 웃시야 왕은 52년을 통치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어서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을 때, 신령한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3절의 거룩은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의 주제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은 여호와께서 권능 있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광경을 접한 선지자는 더럽고 추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2. 자기를 향한 비전(Inward vision)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향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은 없는가, 감추어 둔 우상은 없는가, 내 마음 속의 왕좌에 앉아서 일을 그르치는 은밀한 동지나 누룩덩이는 없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사야에게 자비와 용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7절).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 밖으로 향한 비전(Outward vision)

선지자 이사야는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내면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자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이사야는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할 헌신된 주의 종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맞고, 내면을 향하여 깊은 비전을 가진 자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성스럽게 전하다가 혹독한 왕 므낫세에게 잡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의 높고, 깊고, 넓은 삼중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위로 향한, 안으로 향한, 밖으로 향한 이상을 가지시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도환 집사
(가브리엘찬양대 부대장)

기독교인 주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름답고 신선한 자연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가브리엘찬양대가 지휘 백경화 권사, 오르가니스트 이수정 선생, 피아니스트 박승기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하며 박민정, 김도은, 김동렬, 오광근 대원이 곡중 솔로를 맡아서 추수감사절 절기찬양 "말씀대로 거두리라(김하나 작곡)"를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곡조를 담은 찬양곡을 모든 대원들이 다함께 또한 파트별로 연습하여 국악 연주(대금 오병옥 선생)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민 집사, 안성현 집사, 오승민 집사, 최정숙 집사, 홍혜련 집사 등 대원들이 직접 연기하여 찬양에 더하였습니다.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아 올 해도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소생시키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교회가 회복되어 감을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이나 듣는 모든 성도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치유되도록 찬양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오정수 장로님과 최광성 장로님을 만날 때에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서울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힘든 여정을 걸어갔을 대진중앙교회 김춘기 목사입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변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와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번 헌당예배를 드리며 서울교회에서는 대진중앙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보내 주시고, 또 귀한 예물로 진심을 담아 섬겨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 대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5년 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계셨기에 서울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대진 지역과 대진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인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거행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40-50명이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통하여 보내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중앙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역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부흥의 불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 마을로 내려갈 수 있도록
- 영적, 인적, 물질적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잘 공급 되도록

· 연로하신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대진중앙교회를 위해 죽도록 섬겨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교회의 수습과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좁은 길에 있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저는 대진에서 보았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와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며 기도로 승리하려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성령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진중앙교회 목사 김춘기



- ① 대진중앙교회 전경
- ② 감사패를 증정하는 대진중앙교회 김춘기 목사와 서울교회 최광성 장로
- ③ 축하의 말씀을 전하는 오정수 은퇴장로
- ④ 대진중앙교회에서 서울교회에 증정한 감사패
- ⑤ 서울교회에 감사를 전한 대진중앙교회 성도들

핸드벨단원 모집

2부 핸드벨과이어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주일을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만 50세 이하 찬양을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성별 무관) - 문의 : 강지은 대원 010-3272-1420

2019년도 연말 교회 일정

- **11월 24일(주) :**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28주년 감사주일
감사 찬양예배 (가브리엘찬양대)
- **11월 29일(금) :** 교역자·장로 목회정책협의회
- **12월 8일(주) :** 2020년 섬김위원 임명과 교구총회
- **12월 15일(주) :** 교사총회
성탄축하 찬양예배(할렐루야찬양대)
- **12월 22일(주) :** 성탄축하 특별행사(교육부서)
- **12월 24일(화) :** 오후 8시, 성탄전야예배
- **12월 25일(수) :**
오전 5시 : 성탄절 새벽예배 (베들레헨찬양대)
오전 11시 : 성탄절 축하예배 (할렐루야찬양대)
- **12월 29일(주) :** 교회학교 졸업
- 찬양예배 시 : 황준직분자 은퇴 및 장로안식년, 장한어머니상(다자녀, 개근자녀) 시상, 성경통독 시상
- 찬양예배 후 : 특별 제직회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승인의 건)

교회김장

25일(월) / 26일(화)

갑자기 몰아쳤던 추위가 물러가고 내일부터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 따뜻한 날씨 가운데 교회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테반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이번 김장 감치는 그 어느 때보다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배추를 다듬고 절이는 일과 모래 절인 배추 씻는 일은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일은 주로 스테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장 재료를 준비하는 일과 김장 속 만드는 일, 속 넣는 일은 주로 여성도님들께서 하셔야 하므로 양일간 오전 중으로 베델하우스에 오시면 됩니다.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준비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이번 김장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맛난 점心和 새참을 준비하겠습니다.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1월25일	월	고전 13-16		요 5:1-7:39	
11월26일	화	고후 1-3		요 7:40-11:57	
11월27일	수	고후 4-8		요 12-16	
11월28일	목	고후 9-13		요 17-21	
11월29일	금	갈 1-3		행 1-5	
11월30일	토	갈 4-6		행 6-9	
12월1일	주일	엡 1-4		행 10-13	

등정



■ 개인전 : 13교구 김점미 권사 오픈감사예배: 11. 25(월) 5시 갤러리 피치 11.22 (금)-12. 2 (월)
강남구 도산대로 87길 25(청담동) T 02 542 2443



■ 연주회: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당진시립합창단 제28회 정기연주회 「메시아」 12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당진시립문예의전당 대공연장
*참석을 원하는 성도는 가브리엘 찬양대에 문의 바랍니다.

■ 금주의 식사 : 송미령 권사 가정
이신혜, 김동준·이신영 이신재
(이강진 장로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함박스테이크, 김치

■ 주일 쿨 제공 : 오치열장로, 하숙권사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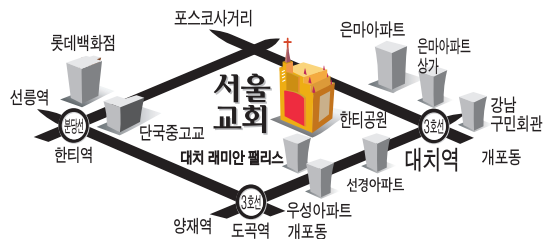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제28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2. 2019 사명자대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교회의 회복과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